

道敎 倫理와 孫思邈의 醫德에 관한 研究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權景仁·李丙旭·金恩瑕

A study of relation between Taoism and Sun-Si-Miao's medical morals

Kwon GyungIn·Lee ByungUk·Kim EunHa

Mankind has had various medical treatments and theories as the result of steady researches about many diseases. Medical science has something to do with religions closely. That is, he tries to solve the problem connected with his life through medicine, while he tries to overcome the fear of death through the religion.

Also I have tried to establish the relations between Oriental medicine.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Taoism and medical morals(醫德).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The moral consciousness in medicine is the one of great traditions in Oriental medicine which comes to the front by Sun-Si-Miao(孫思邈). That is influenced by the ethical view that a moral act influences the long and the short of life.

『Tai-Ping-Jing(太平經)』 says that man enjoys longevity if he tends his parents with filial piety and then is aware of the principle of heaven and earth. Sun-Si-Miao teaches in Da-Yi-Jing-Cheng(大醫精誠) that 'Treat the patient impartially', 'Don't weigh the merits when treating the patient', 'Avoid the use of animal medicines as you can.', 'As a man sows, so he shall reap.', 'Don't be jealous and don't be proud.',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main principles about act and taboo suggested in 『Bao-Piao-Zi(抱朴子)』

Key Word: morals, Taoism, Sun-Si-Miao(孫思邈).

I. 緒論

醫德은 孫思邈에 의하여 구체화된 개념으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韓醫學의 優秀한 傳統이다. 孫氏는 의학에 대하여 至精至微之事이니 至粗至淺之思로써 精勤不倦해야만 비로서 完成될 수 있다고 認識하였으며, 『千金要方』의 書頭에 「大醫精誠」

* 교신저자 : 金恩瑕,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053-819-1575.

을 두어 醫師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道德인 準則을 全體的으로 論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孫氏의 사상은 '生老病死'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의학과 종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吉元昭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욕망은 의학에, 죽음의 공포는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즉 ‘삶과 죽음’, ‘의학과 종교’는 표리의 관계이므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양자는 완전히 동시대에 존재해 왔다”²⁾라고 하여 생존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안의 의학과 종교라고 밝혔다. 따라서 生死의 문제에 있어서 자못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학과 종교-특히 道教를 살펴봄으로써 孫思邈의 醫德思想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本論

I. 道教와 醫學

吉元昭治는 窪德忠의 말을 인용하여 “도교란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거기에 道家, 陰陽五行, 讖緯, 醫學, 점성 등의 여러 설과 무속 신앙을 덧붙여 불교의 조직과 체계를 본따 완성한, 불로장수를 목적으로 한 주술적 경향이 강한 現世 利益의인 자연종교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중에서 ‘의학’, ‘불로장수’, ‘현세이익’ 등의 항목은 모두 의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교의 내용을 下出積與의 말을 인용하여 철학적 부분, 윤리적 부분, 方術的 부분, 의술적 부분으로 분류했고 이중 불로장수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므로 의학적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³⁾.

1) 道教의 倫理

도교는 윤리적 부분에서 老莊學說을 시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도교는 老子와 莊子의 윤리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노자의 윤리설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지혜를 악용하고 기교를 부리는 거짓에 찬 이 세상을 벗어나 순박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갓난아이는 천진난만하여 아무런 거짓도 모르고, 아무런 虛飾도 없다. 마치 自然無爲한 道와 같으므로, 노자는 본체에 합일하는 것을 갓난아이를 복귀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노자의 생각은 모든 경험적인 지식은 최악의 근본이며, 爭奪은 경험적 지식의 발달현상이므로, 지식이 진무한 유아기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따라서 노자의 윤리설은 절대적 소극론이라 할 수 있다⁴⁾. 그리고 淸靜恬淡, 無爲自然, 謙下不爭 세 가지 방법을 쓰면 盛德의 사람이 되어, 도와 일체가 되고, 유한의 현상계를 탈출하여 무한의 본체와 하나가 되며, 영구불멸의 천지와 함께 장구해진다고 했다. 노자는 이러한 뜻을 말하면서, 잘 섭생하면 常往不滅하여, 깊은 산에 가더라도 범을 만나지 않고, 전장에 나가서도 결코 죽을 염려가 없다고 했다. 莊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층 흥미로운 용어로서 인간의 수양의 결과는 至人 또는 神人, 즉 후세에 말하는 신선이 된다고 했다⁵⁾. 장자 윤리설의 목적 또한 상대적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적 무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無爲自然, 去成心⁶⁾, 無欲, 心齋 坐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내용 외에도 도교의 윤리적 특성에 대하여 앙리 마스페로는 “도교의 가장 흥미진진한 특성은, 정신 집중과 법열의 경지를 추구하는 신비적 실천, 남들에게 베푸는 포시, 가르침 같은 도덕적 실천 등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충분한 공적 및 개인적 의례의 매우 다양한 실천방식들이,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 스스로도

2) 吉元昭治 著, 都洵淳 譯, 道교와 불노장수의학, 열린책들, 서울, 1992, p. 31.

3) 上揭書, p. 38.

4) 宇野哲人 著, 鄭相九 譯, 中國思想, 內外新書, 서울, 1991, p. 115.

5) 上揭書, pp. 118-119.

6) 上揭書, p. 137. 成心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아집과 같으며, 차별적인 견해이다. 우리 인간들이 미련스럽게 서로 다투는 것은 다름 아닌 성심이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듯이 순전히 생리적·신체적 측면의 가치와 이익만이 있을 뿐인 실천방식들, 즉 섭생법, 호흡법, 방중술, 체조술 등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 도교의 이러한 특성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구제의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구제란 ‘장생’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은 ‘장생’을 신체의 물질적인 不死로 이해했다.”⁷⁾라고 하여 도교에 있어서는 導引養性術의 실천 자체가 윤리의 구체적 실천방식이며,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덕이 별로 없으며 덕행을 충분히 쌓지도 못한다.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는 몸으로 하늘을 나는 지경에 도달하지 못한다.”⁸⁾⁹⁾고 하였다. 즉 신선이 되려면 지극히 높은 곳의 기를 흡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살고있는 神吏와 친분을 맺을 만큼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교에 있어서 윤리도 신선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교의 또 다른 윤리개념에 중예 대표적인 것이 ‘承負說’이다. ‘승부설’의 개념은 『老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다. 즉 노자는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人后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¹⁰⁾, “治人事天, 莫若嗇. 夫爲嗇, 是謂早服, 早服謂之重積德, 重積德則無不克, 無不克則莫知其極, 莫知其極, 可以有國, 有國之母, 可以長久, 是謂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¹¹⁾라고

함으로서 사사로움 없이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우선시하여 덕을 쌓는 것이 장생의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長生은 개인의 長生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間의으로 널리 퍼짐을 뜻하기도 한다. 즉 생명의 공간적인 퍼짐을 뜻하여 민족의 수가 팽창함이고, 오래 볼 수 있음은 시간적으로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에 따름으로써 덕을 쌓으면 자신의 장생은 물론 민족 또는 자손의 장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도교의 윤리관이 곧 ‘承負說’이다. 吉元昭治는 승부설에 대하여 “『주역』 문언에 ‘적선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인이 오늘날에도 간직하고 있는 도덕관의 하나인데, 『태평경』속에 「解承負訣」, 「五事解承負法」 등의 편이 있다. 또 『詩文書大信傳』에도 승부에 대해 선행을 하면 그만한 보답이 돌아온다고 써어 있다. ‘세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과실에 의한 승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승부란 인과응보를 말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과는 다르다. 윤회는 어디까지나 개인에 얽힌 응보이며 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나쁜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승부설이란 한 개인의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응보이며 작은 선에는 좋은 일이 조금 생기며 큰 선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응보인데, 이에 반해 나쁜 일은 어떤 행태로든 자자손손에게 미친다고 한다. 이 가르침에는 선악은 천지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 ‘선을 행하면 천지가 그것을 알며 악을 행해도

7) 앙리 마스페로 지음, 표정훈 옮김, 불사의 추구, 서울, 동방미디어, 2000, pp. 7-8.

8) 『조장』에 수록되어 있는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注』에 李少微가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다.

9) 불사의 추구: 前揭書, p. 8.

10) 박경희, 老子道德經, 상주서, 청도관, 2001, pp. 31-33.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능히 길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산다. 성인은 몸을 뒤에 놓으므로 몸을 앞서고, 몸을 밖에 놓으므로 몸 안에 있다. 그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자기를 이룰 수 있다.”

11) 上揭書, pp. 231-233.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에 종사

함에는 사사로움 것에 대하여 인식할 만한 것이 없다. 무릇 오직 인식하기에 이것을 일찍 순종한다라고 이른다. 일찍 순종하는 것은 덕을 거듭 쌓는 것을 말한다. 덕 쌓기를 거듭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끝을 알 수 없다. 끝을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가질 수 있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니, 가히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싹트는 것이 견고하면, 생명이 오래가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도라고 한다.”

친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훌륭한 선덕을 행한 자는 늘 착한 일을 하여 오직 혼자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太平道에 귀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인함에 실망하여 유토피아를 꿈꾸었는데 거기에 후대의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기원했던 것 같다. 이것은 그이후의 중국인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종교, 도덕, 윤리 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승부사상은 여행자를 돕고 다리를 세우며 길을 만들고 환자를 간호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등 선행과 결부된 것으로 종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선악의 응보는 명대에는 '功過格¹²⁾'을 낳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포박자』 微旨篇에도 선악에 대해 算紀¹³⁾라는 것이 나온다.¹⁴⁾라고 하여 도덕적 행동을 통하여 덕행을 쌓음으로써 신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승부설을 근거로 도교의 윤리의 실천여부가 직접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간주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2) Naver 백과사전: 중국에서 민중도덕의 실천을 권장하는 권선징악적인 선서(善書). 금욕주의적인 일상생활로 현상타파를 하려 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이 명나라 말기 이후 격변기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보급되었다. 일상적인 행위를 선악(善惡), 즉 공과(功過)로 나누고, 그 정도의 차이를 수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산정(算定)·분류한 책이다. 월일(月日)을 단위로 나날의 행위 결과를 집계하여 자기비판의 자료로 삼는 것이었다. 그 기원은 한(漢)나라에까지 소급되지만, 명나라 이후에는 공과를 상쇄하여 산정하는 것, 내용이 대폭적으로 민중화한 것, 어느 특정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게 한 것이 특색이었다. 공과격 대로의 전형적인 생활을 한 예로는 원황(袁黃)을 들 수 있는데, 그의 공과격은 그 이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 葛洪 著, 昔原台 譯註, 新釋抱朴子內篇1, 서울, 서림문화사, 1995, p. 179. "천지에는 허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며, 사람이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紀算(수명의 길이)을 빼앗는다. 산이 줄면 그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며, 자주 憂患을 당하기도 한다. 산이 다한 사람은 죽게 된다. 산을 뺏는 죄상은 수백 가지가 있으며, 일일이 전부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몸 속에는 三尸라고 하는 벌레가 있다. …… 그믐날 밤에는 조왕신도 승천하여 사람의 죄상을 낚아 보고한다. 죄가 큰 자에 대해서는 紀를 뺏는다. 기라고 함은 300일이다. 죄가 작은 자에게는 算을 뺏는다. 산은 3일이다."

14) 도교와 불노장수의학: 前掲書, pp. 69-70.

그중 하나인 '의덕'은 의학윤리에 관한 부분으로써 한의학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한의학계에서는 '윤리'일 뿐이라고 여기고 어떠한 이론적 설명이나 논쟁이 없으며, 다만 위정자 혹은 의사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에서만 평가했던 부분이다. 반면 도교의 입장에서는 '의덕'과 같은 의학윤리 역시 의사 자신이 仙人이 되기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보고 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불사의 신선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보았다.

2) 孫思邈의 醫德과 『太平經』의 윤리관

(1) 『太平經』의 윤리관

왕명에 의하면 『太平經』은 후한말에 저술된 도교의 초기 저작¹⁵⁾으로써 『태평경』의 우주론적 사유는 이후의 도교적 사유구조의 핵심들이 되고 도교 자체의 인간관 및 윤리관의 정립뿐 아니라 철학적 체계의 적용, 즉 사회정치철학을 정립하는데 기본적 사유들이 된다. 또한 『태평경』에서의 올바른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는 세계의 형이상학적 구조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파악으로부터 해명된다. 『태평경』에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자 도교적·종교적인 수행의 문제와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태평경』에서 실천의 문제는 도덕적 인간으로서 인류성의 실천과 守¹⁶⁾이라는 종교적 수행의 문제를 포괄한다¹⁷⁾.

『태평경』은 사상적으로 다양한 경향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섭하여 하나의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태평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향들이란 원시종교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여 兩漢에 걸쳐 보편화되었던 여러 사상들, 즉 전한

15)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들녘, 서울, 1998, p. 54.

16) 도교와 불노장수의학: 前掲書, p. 66-67. '守'이란 '일신의 원기를 지키는 것' 혹은 '일신의 정·기·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守—明之法은 장수의 근본'이다. '수일의 도란 그 性을 기르는 것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한다.

17) 도교철학의 이해: 前掲書, p. 39.

초 유행하였던 도가 계열의 사상과 동증서로부터 시발되는 유교사상, 잡가적 성격을 갖지만 분명히 도가적인 『회남자』의 사상, 비판철학적 입장을 취하는 왕충의 철학, 그리고 사회사상의 측면에서 『태평경』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왕부의 사상 등을 포함한다¹⁸⁾. 이 중 유교와 불교에 대한 『태평경』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평경』은 유가 또는 유교에 관하여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유교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유교적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러한 가치를 인정한다¹⁹⁾. 유가 또는 유교사상과 관련하여 『태평경』에서 말하는 것은 충, 효 및 도덕과 인이라는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 중 효가 가장 가치있는 덕목이며 효를 철저히 실천하면, 하늘과 땅의 이법을 알게 되어 세상의 길하고 흉한 바를 알게 되며 나아가서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⁰⁾. 『태평경』은 철저히 유교적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현실적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덕목들은 현실에 사는 인간들이 인륜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덕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장수라는 목적을 향해서이다. 장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다. “『태평경』이 겉으로는 도덕과 정치를 다루지만, 정신적 훈련과 다른 장수의 방법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철저히 도교적이다.” 칼텐마크의 이러한 발언은 『태평경』이 충과 효, 그리고 도덕과 인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왜 그것이 도교적인가를 시사한다²¹⁾.

서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는 중국에서 1-2세기에 이르러 각종 경전의 번역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즉 원시도교는 불교의 보급과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다. 그러나 원시도교는 불경이 폭

넓게 번역되고 보편화되는 후한 말 환제·영제 시대보다 앞선 순제 때 이미 창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교의 창립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본사상은 중국전통의 사상자료에서 발원한다.”²²⁾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도교는 중국 전통사회로부터 성장한 종교로서 창립 당시 근본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도교가 후대의 발전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²³⁾.

도교의 윤리 관념 중에 ‘承負’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 이는 인간이 올바르게 살고 주어진 수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황천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 『태평경』은 병들거나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을 한 개인의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행위가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의 책임을 부여한다. 한 개인의 행위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承負’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承負’개념 외에도 “대저 도와 덕 그리고 인은 하늘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여 도를 지키면 항상 길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 도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쇠망하고 흉하게 된다.心和 神이 사라지면 죽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도와 덕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 없어지며 천지 또한 혼란되고 훼손된다.”²⁴⁾라고 하여 자연안에서 도와 덕이 소멸되면 자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마음과 신이 소멸되면, 사람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²⁵⁾고 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행위의 여부에 따라 길흉이 정해지는 이치를 설명하였다.

22) 楊會文, 道敎의 創立和 『太平經』, 世界宗教研究, 第2集, 1980, p. 115.

23) 도교철학의 이해: 前揭書, p. 87.

24) 『太平經』: “夫道德與人, 正天之心也, 比若人有心矣, 人心善守道, 即常與吉, 人心惡不守道, 即常衰凶矣, 心神去, 即死亡矣. 是故要道與德絕, 人死亡, 天地亦亂毀矣”

25) 도교철학의 이해: 前揭書, p. 170.

18) 上揭書, p. 65.

19) 上揭書, p. 85.

20) 上揭書, p. 86. “天下之事, 孝爲上第一”

21) 上揭書, p. 87.

(2) 孫思邈의 윤리관

孫思邈은 『大醫精誠』에서 “凡大醫治病，必當安神定志，無欲無求，先發大慈惻隱之心，誓願普救含靈之苦。若有疾厄來求救者，不得問其貴賤貧富，長幼妍媸，怨親善友，華夷遇智，普同一等，皆如至親之相。”²⁶⁾이라고 하여 의사는 모든 患者를 평등하게 대하고 아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자』에서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능히 길고 또 오래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산다. 성인은 몸을 뒤에 놓으므로 몸을 앞서고, 몸을 밖에 놓으므로 몸 안에 있다. 그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자기를 이룰 수 있다.”²⁷⁾,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에 종사함에는 사사로운 것에 대하여 인색함만한 것이 없다. 무릇 오직 인색하기에 이것을 일찍 순종한다라고 이른다. 일찍 순종하는 것은 덕을 거듭 쌓는 것을 말한다. 덕 쌓기를 거듭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끝을 알 수 없다. 끝을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가질 수 있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니, 가히 길고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싹트는 것이 견고하면, 생명이 오래가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도라고 한다.”²⁸⁾라고 함으로써 사사로움 없이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우선시하여 덕을 쌓는 것이 장생의 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깊으며, 『태평경』에서 “구름과 비가 베풀고 백성은 농사일 할 것을 걱정하며 원기가 되돌아와 머물며 여러 곡식과 초목, 기어 다니는 것, 숨차서 헐떡거리는 것, 꿈틀거리는 것 모두 원기를 머금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새, 뛰어다니는 짐승, 물속에 사는 것 또한 그러하다.”²⁹⁾, “하늘이 본받

는 법이 되는 것은 높여서 위가 없고 거꾸로 낮추어서 아래가 없으며 커서 밖이 없고 거꾸로 작아서 안이 없이 1만2천 가지의 사물을 품어 기르며 선한 것, 악한 것, 큰 것, 작은 것 모두가 그것을 이롭도록 도와주며, 원기를 주어서 태어나게 하니, 마침내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³⁰⁾라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즉 이 세계 안의 모든 사물들이 원기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고상한 것, 선한 것뿐만 아니라 천하고 악한 것 또한 원기로부터 생겨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고상한 것, 선한 것 등을 구별하는 것이 곧 사사로움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러한 원기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이롭도록 돕는 것처럼 사사로움을 없앤다는 도가의 ‘平等’ 思想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亦不得瞻前顧後，自慮吉凶，護惜身命。見彼苦惱，若己有之，深心凄愴。勿避險巇，晝夜寒暑，飢渴疲勞，一心赴救，無作功夫形迹之心。”³¹⁾이라고 하여 환자를 진료할 때 득실을 따지고 자신의 몸을 사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며,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였고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구해야 하며 자신의 행적을 남기고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손씨의 이러한 자세는 『抱朴子微旨』의 “남의 행복을 즐거워하고 남의 고통을 애석해 하라, 남의 위급함을 도와주고, 빈궁한 사람을 구조할 것이다. …… 남이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같이 생각하고, 남이 손해를 보면,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것같이 생각할 것이다.”³²⁾라는 권장사항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夫殺生求生，去生更遠。吾今此方，所以不用生命爲藥者，良由此也。其蛇蟲，水蛭之屬，市有先死者，則市而用之，不在此例。只如鷄卵一物，以其混

26) 劉更生 外1人,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4, p. 1.
 27) 老子道德經: 前揭書, pp. 31-33. “天長地久。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生。是以聖人后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非以其無私邪？故能成其私。”
 28) 上揭書, pp. 231-233. “治人事天，莫若嗇。夫爲嗇，是謂早服，早服謂之重積德，重積德則無不克，無不克則莫知其極，莫知其極，可以有國，有國之母，可以長久，是謂深根固抵，長生久視之道。”
 29) 道교철학의 이해: 前揭書, p. 95.

30) 上揭書, p. 170.
 31) 千金方: 前揭書, p. 1.
 32) 新釋抱朴子內篇1: 前揭書, p. 180. “樂人之吉，憫人之苦，具周人之急，救人之窮，手不傷生，口不勸禍，見人之得如己之得，見人之失如己之失。”

沌未分, 必有大段要急之處, 不得已隱忍而用之.”를 佛家의 說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³³⁾, 그 말대로 불교의 교리로 설명할 경우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 불교의 승려들과 비교할 때 손사막의 생명존중 사상은 말뿐이라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도교의 의약을 대표하는 손사막의 경우에는 포박자에서 주장하는 도교의 교리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즉 “하찮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어질게 대할 것이다. …… 손수 생물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³⁴⁾라는 교리의 권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그리고 “나는 새를 쏘아서 떨어뜨리고, 잉태한 짐승과 날짐승의 알을 터뜨린다.”³⁵⁾라는 도교의 금기규율을 어기지 충실히 닮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人行陽德, 人自報之, 人行陰德, 鬼神報之, 人行陽惡, 人自報之, 人行陰惡, 鬼神害之”를 佛家의 說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³⁶⁾, 이는 도교가 생성될 당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태평경』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承負’³⁷⁾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귀신이 응한다는 개념 역시 三屍와 竈王神이 하늘로 올라가 司命에게 선악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수명에서 紀算을 뺏는다는 말과 관련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손사막은 의사와 의사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러는 과정 중에 의사들간의 화합을 중시하였다. 손씨는 「治病略例」와 「大醫精誠」에서 “古來醫人, 皆相嫉害. 扁鵲爲秦太醫令李醯所害, 卽其事也. 一醫處方, 不得使別醫和合, 脫或私加毒藥, 令人增疾, 漸以致困, 如此者非一, 特須慎之. 寧可不服其藥, 以任天真, 不得使愚醫相嫉, 賊人性命, 甚可哀傷.”³⁸⁾, “夫爲醫之法, 不得多語調笑, 談謔喧嘩, 道說是非, 議論人物, 銜耀聲名, 訾毀諸醫, 自矜己德. 偶然治瘥一病, 則昂頭戴面, 而有自許之貌, 謂天下無雙, 此醫人之膏肓也”³⁹⁾라고 하여 의사들간의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弊害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였다. 이러한 의사들 사이의 문제를 역시 『포박자·미지』의 “잘난 체하지 말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보다 우수한 자를 질투하지 말라”⁴⁰⁾는 도교의 가르침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醫德이라는 훌륭한 의학전통을 세운 손사막의 윤리관은 도교의 윤리관에 입각해서 선행을 통하여 禍를 면하고 천지의 도를 따름으로서 장생하는 목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행방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덕은 손사막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일생동안 철저하게 지켜짐으로써 도교도들에 의하여 ‘藥王’이라고 숭배를 받았다.

III. 結 論

醫德은 孫思邈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대두된 한의학의 훌륭한 전통의 하나이며, 의덕이라는 전통 수립과정에 ‘윤리의 실천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장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교의 윤리관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 도교의 윤리관과 孫思邈의 醫德思想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33) 陸肇基, 孫思邈所處時代的社會和思想背景, 中華醫史雜誌, 北京, 1983, pp. 9-10.

34) 新釋抱朴子內篇1: 前揭書, p. 180. “仁逮昆蟲 …… 手不傷生”

35) 上揭書, p. 180. “彈射飛鳥, 劓胎破卵”

36) 陸肇基: 孫思邈所處時代的社會和思想背景, 中華醫史雜誌, 北京, 1983, pp. 9-10.

37) 도교철학의 이해: 前揭書, p. 153. “승은 앞이 되고, 부는 뒤가 된다. 승이란 앞사람이 본래 천심을 이어받아 행위해야 하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상실하고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날로 쌓임이 오래되고 서로 모이는 바가 많아지면, 지금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오리려 무고하게 그 허물을 입어 그 재앙을 이어받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앞의 것이 承이 되고 뒤의 것이 負가 된다. 부는 또한 재앙의 미침이 한사람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시 소로 집지우게 하는 것이므로 부라 이름한다. 부란 앞 사람이 뒤에 태어나는 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38) 千金方: 前揭書, p. 2.

39) 上揭書, p. 1.

40) 新釋抱朴子內篇1: 前揭書, p. 180. “不自貴, 不自譽, 不嫉人勝己”

론을 얻었다.

1. 『太平經』은 효를 철저히 실천하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게 되어 죽지 않고 오래살 수 있다고 하였으며, ‘承負’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하여 윤리와 수명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2. 손사막이 『大醫精誠』에서 ‘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라’, ‘환자를 치료할 때 득실을 따지지 말라’, ‘동물성 약재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라’, ‘사람의 선행과 악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자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 『抱朴子』에서 제시한 여러 행동 강령 및 금기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參考文獻

1. Naver 백과사전
2. 葛洪 著, 昔原台 譯註, 新釋抱朴子內篇1, 서울, 서립문화사, 1995.
3. 吉元昭治 著, 都玆淳 譯. 도교와 불노장수의학, 열린책들, 서울, 1992.
4. 박경희, 老子道德經, 상주시, 청도관, 2001.
5. 앙리 마스페로 지음, 표정훈 옮김, 불사의 추구, 서울, 동방미디어, 2000.
6. 楊會文, 道教的創立和『太平經』, 世界宗教研究, 第2集, 1980.
7. 宇野哲人著, 鄭相九 譯, 中國思想, 內外新書, 서울, 1991.
8. 劉更生 外1人,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4.
9. 陸肇基, 孫思邈所處時代的社會和思想背景, 中華醫史雜誌, 北京, 1983.
10.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돌베개, 서울, 1998.